



가는 다솜 2019

가온은 세상의 중심, 다솜은 사랑의
순우리말입니다

VOL
29

봄

가는 다도 2019

CONTENTS

- 03 삶의 노래
- 04 보호자 인터뷰
- 05 실로암 이야기
- 06 실로암 스케치
건강한 삶 | 활기찬 삶 | 행복한 삶 | 함께하는 삶 | 직원동정
- 13 장애등급제 폐지 안내
- 14 실로암 칼럼
- 15 더불어 사는 삶

 실로암요양원

원장	박지훈	법인명	사회복지법인	법인대표	김선태 목사	이용정원	30명
설립일	2010년 7월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이용현원	28명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직원정원	29명
						직원현원	28명



삶의 노래



거주인 이금선
53세 | 2014년 8월 입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금선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지지리도 복도 없이 태어난 나, 태어난지 2~3일 만에 길에 버려져서 생일도 모르고 고아원(보육원)에 입소한 날을 생일로 삼고 있는 나, 이제 나이 셋, 돌아보면 참 기구한 운명이구나 싶습니다.

그 시절의 보육원이 대부분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그 걸 견디지 못하고 16살 때 사회로 나와서 공장을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20살 되던 해에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여 배운 게 없으니 이일 저일 하면서 공장을 전전하다가 17살 연상의 이혼남을 만나게 되면서 그나마 가졌던 모든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쌍둥이) 둘을 한꺼번에 얻는 기쁨도 잠시, 특별한 직업이 없던 남편은 그날 벌어 그날 먹는 삶을 살았고, 저 또한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셋방에서 시작한 삶, 결국 전세방 하나 얻지 못하고, 여관방을 전전하면서 살았는데 참 힘들고 고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술주정이 심하여 술만 취하면 저는 두말 할 것도 없고 아이들까지 구타했습니다.

그러면서 37살 되던 해. 포도를 먹고 기절을 했는데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고, 당뇨합병증으로 인하여 백내장으로 실명, 방광까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소변 주머니를 차고 그렇게 12년을 여관방을 전전하면서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생활이 궁하다 보니 눈이 안 보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에게 더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날도 술에 취해서 구타하다가 지쳐서 잠이든 남편이 너무너무 싫고 무서워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두 아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쌍둥이다 보니 둘 다 군대에 입대하고 없는 상태여서 그런지 더 심하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나와서 더듬거리면서 왕십리역까지 갔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지나가던 대학생의 도움으로 112에 신고해주었고, 많은 분의 도움으로 왕십리 영성

쉼터에 한 달 정도 기거하다가 이곳 실로암요양원으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던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이날은 제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수소문 끝에 이곳을 알고 찾아와서 협박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직원들이 막아 주었고, 작년 4월 전립선암과 폐렴으로 사망할 때까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따로 살면서 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버지를 싫어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에 있어서 끊을 수 없는 인연, 아들들과 함께 장례까지 잘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철저한 건강관리로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착용했던 소변 주머니도 제거하고 건강이 날로 호전되어 가던 중, 당뇨 후유증으로 늘 혈압이 높아 고생했는데, 지난 초겨울 뇌출혈이 오고 말았습니다. 들은 얘기로는 뇌출혈은 바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반신불수가 되거나 사망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곳 요양원 선생님들의 빠른 대처로 곧바로 병원을 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재활 치료를 받고 지금은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여기 올 때 제2의 삶을 시작했는데 또 한 번 제3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두 아들도 열심히 일하면서 잘 살고 있고, 저도 더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받아서 이곳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늘 제가 있기까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많은 분이 계십니다. 일일이 다 호명할 순 없지만, 이곳 실로암요양원이야말로 이생에서의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신 모든 분에게 지면을 통하여서나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호자 인터뷰



강서혜
황난희 보호자



안녕하세요?

저는 황난희 엄마 강서혜입니다.

이곳 실로암요양원에 우리 난희를 보낸 지가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짧게나마 저와 난희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난희가 태어나고 한 달쯤 간염 주사 투여 후 피가 응고되지 않고 멈추지 않아 바로 병원을 찾았지만, 뇌 지주막하출혈로 판정되어 소아병동 인큐베이터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상 증상으로 인해 계속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녔습니다. 자라면서 어린 시절에는 매우 산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꼬집는 행동들이 많았으며 특히 동생을 꼬집어 상처를 내는 경우가 빈번하여 속상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지적장애를 고치기 위해 방지거병원을 다니면서 신경과 약을 복용하고 언어치료 및 다양한 치료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난희는 초, 중, 고 특수학교를 다녔으며 많은 말은 아닙니다만 단단한 단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요 부르기를 매우 좋아했으며 애국가도 곧잘 불렀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 후 애들 아빠와 이혼하게 되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직장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그 때부터 어쩔 수 없이 난희를 아는 분 소개를 받아 서산에 있는 시설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난희랑 비슷한 친구들이 많았으나 시설 및 환경이 좋지 않았으며 시설 측에서는 우리 난희가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벽 증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마음에 많이 아팠고 저의 입장에서는 시설에 대한 불만이 더욱 생겼습니다. 그 후 서울 관악구청을 찾아가 이런 상황과 시설 위치가 너무 멀어 방문이 힘들다고 상담을 진행하니 관악구청에서 실로암요양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관악구청 직원과 실로암요양원 직원이 서산으로 내려가 상담 진행 후 난희와 맞지 않는 시설로 판단되어 실로암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오고 난 후에도 난희에 대한 걱정은 많았습니다. 전 시설처럼 잘 적응하지 못하고 생활하지는 않을

까 했지만 한 번씩 와서 보니 느낌이 달랐고 직원 선생님들이 매우 친절하고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거주인들을 대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보살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난희도 아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엄마와 함께 살던 때처럼 많이 밝아진 듯하며 그전 시설에서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생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선생님들과 친해지고, 짧은 단어도 말하고, 노래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 적응을 하고 생활하고 있구나!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자주 안 오는 이유는 난희가 잘 적응하지 못할까 봐, 또 잘 적응하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속상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생활하면 좋을 텐데 떨어져 지내는 것에 마음이 아프고 요양원에 왔다 가면 며칠은 속상합니다. 난희 마음도 엄마가 왔다 가면 나를 떼어 놓고 가는구나 하는 마음이 항상 남아 있을 것 같아 미안합니다. 저번 방문에는 계단까지 쫓아 내려와 더 속상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제가 요양원에 바라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너무 잘 해주고 있어 그저 감사 할 뿐입니다. 특히 생각나는 것은 저번 방문 때 난희가 배변 실수를 하였는데 선생님이 다 씻겨주고 쟁겨주는 것을 보았을 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매번 느끼는 부분이지만 저도 이렇게까지 잘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난희가 잘 생활하고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차를 구입하여 월 1회 이상 우리 난희를 만나러 자주 방문할 예정입니다. 짧게나마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모든 요양원 식구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로암 이야기



2014년 12월 입사
선임생활재활교사 김은철

첫 출근하는 날 사회복지 경력은 어느 정도 있었어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신입 사회복지사처럼 사무실에서 착석하여 우아하게 커피 한 잔을 마실 때쯤 전화가 왔습니다. 4층으로 올라와 거주인 식사 보조 좀 해달라고… 아, 내가 거주인들과 24시간 밀착 케어하는 그런 곳에 와 있구나! 이렇게 우아하게 사무실에서 마시는 커피는 사치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당직을 서는 날 느끼게 된 김** 거주인의 특별한 행동 바지 바지 바지 맘마마, 어어 물물, 더워 더워 추워 추워 욕구에 충실히 반응하는 시중복장애인인 그는 저에게 크고 작은 시련을 주었습니다. 당직 중 용변 실수를 해서 온 방에 대변칠을 하고 밤새 “이어” 하며 잠을 자지 않고 있어 뜯눈으로 당직을 하게 되면 다음 날 온종일 명하게 되는 그런 김** 씨에게 적응을 하여 한 해 두 해 그분의 용변 기저귀를 정성스럽게 갈아 드리며 저의 요양원 생활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느 날 그분의 기저귀 교체 횟수를 헤아려 보니 매일 6개씩 365일 산출 적인 계산을 해도 2,190번의 기저귀를 교체하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 안에 상처는 그분의 기저귀 교체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치유되고 어느 날 아! 다시 무언가를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설 생활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나의 소리, 그동안 서울에 미련이 남아 있었는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소속과 VMS 인증 요원의 소속도 서울에 그냥 둔 채 서울에서 양주로 출퇴근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난 양주에 있는 사회복지사야 그들과 소통하고 나누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깨달음에 도달할 때 나는 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경기도 양주시 사회복지사협회에 전화를 걸어 바로 가입신청을 하고 회비를 납부하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을까요? 지역의 다양한 사회복지사와 교류하면서 나의 위치와 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멀리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용변 기저귀 교체가 가져다준 깨달음 그 것은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그 안에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군상을 느끼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친한 동료 사회복지사를 보면 김** 거주인의 용변 기저귀를 치우다 보니 깨달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다시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는 에너지를 주었다고.

2019년 봄으로 가는 지금 집도 양주로 이사를 자연스럽게 감동 양주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동대표로 도전하여 감사직에 선출되어 작지만 일찬 공동체 문화를 내가 사는 양주 옥정동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로 인하여 더욱 우리 요양원의 거주인을 정성껏 섬기고 케어 할 수 있는 실천, 무늬만 선임이 아닌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선임 재활교사로 거듭나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이 실로암요양원이 자랑스럽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장애인복지를 또 지역사회복지 를 할 수 있게 한 나의 직장 실로암요양원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모든 거주인과 직원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행복한 공동체에 여러분의 소중한 방문 을 기대 하겠습니다. 저는 자원봉사 담당이기도 하니까요.

건강한 삶



건강산책(양주 관아지 3/15, 서울 식물원 3/29)

3월 봄의 시작, 오랜만에 자연을 벗 삼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산책을 통해 건강도 챙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두 산책에서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팀장, 부장, 신입직원들이 같이 참여하여 더욱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조금은 쌀쌀한 날씨였지만 봄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더욱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야외나들이(고양 낙농치즈테마체험관 3/21)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낙농치즈테마체험관에 방문하여 모짜렐라 치즈와 피자를 직접 만들어 보고 만든 음식을 함께 모여 취식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유산양, 토끼 먹이 주기 체험으로 동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무리로 비누 만들기를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건강체조(주 2회)



이미용서비스(월 1회)

거주인들의 유연성과 근력유지 강화를 위해 요가 및 체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장애인체육회 전문강사와의 연계로 거주인들의 장애 유형 및 연령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조로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매월 변함없이 요양원에 방문하여 거주인들의 개인 취향을 고려하며 커트를 진행해주었습니다. 힘든 내색 없이 나눔을 실천하여 주시는 주오순 자원봉사자님께 감사드리며, 거주인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촉탁의 진료(월 2회)



손발 마사지 서비스(월 1회)

정기적인 촉탁의 진료로 거주인들의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정성 가득한 치료로 신체적 질병 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까지 지지해줌으로써 거주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무지개호스피스 자원봉사단이 요양원에 방문하여 거주인들과의 말벗 서비스와 손·발 마사지 봉사를 통하여 일상의 피로를 풀어주고 있으며, 거주인들과 관계 형성이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활기찬 삶



반야월 예술단 공연(월 1회)



아이노스양상불 공연(월 1회)

정기적으로 반야월 예술단 분들이 요양원에 방문하여 거주인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나는 트로트 노래에 흥이 넘쳐 거주인들과 함께 춤도 추며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잊지 않고 요양원에 방문하여 거주인들에게 악기연주와 합창으로 즐거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거주인들을 위해 노력하고 정성스럽게 활동해 주는 아이노스양상불 봉사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정보나눔교실(월 2회)



휘바스포츠(주 2회)

거주인들의 정보습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사회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정보공유와 함께 거주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라디오 사연도 들으면서 희노애락을 함께 느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증거주인들을 위한 신나는 휘바스포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 스포츠 종목들을 통하여 거주인들의 신체 건강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고 있으며, 간단한 운동방법으로 즐겁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피복구입(월 1회)



외식체험(월 1회)

봄을 맞이하여 피복 구입을 원하시는 거주인들과 함께 의정부 홈플러스를 다녀왔습니다.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만져보고, 신중하게 옷을 고르시는 모습이 마냥 행복해 보였으며, 손마다 쇼핑백 하나씩을 들고 풍성한 마음으로 요양원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거주인들의 추천 메뉴로 인해 홍죽리에 위치한 '두드림 수타 손 짜장' 중식당에서 다양한 중식요리로 외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푸짐한 양과 맛으로 거주인들의 미각을 사로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치료레크레이션(월 2회)



체력단련(주 1회)

두 팀으로 나눠서 열띤 응원과 거주인들의 협동심을 볼수 있는 치료레크레이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만큼은 서로 경쟁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으로 신체와 두뇌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으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거주인들의 기초체력 및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유산소와 근력운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체력단련은 개인의 체력상태와 신체적 특성에 맞는 운동과 기구를 선정하여 직원들의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행복한 삶



설날행사



정월대보름 맞이 척사대회

실로암요양원 대강당에서 전 직원 세배와 렉크레이션, 설맞이 만두 만들기 순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시설에서 느낄 수 있는 소외감 및 외로움을 해소하고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거주인들과 척사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 흥미진진한 대결과 함께 옛 추억을 되새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즐겁고 풍성한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였습니다.



생일잔치(월 1회)



요리교실(월 1회)

매월 첫째 주 생일을 맞으신 거주인들을 축하해드리는 생일잔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축하 노래와 선물 증정, 직원들은 손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며 잔잔한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거주인들과 함께 산적꼬지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명절 같은 분위기로 옛 추억을 회상하며 즐겁게 참여하였습니다. 요리교실은 거주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흥미와 만족도를 높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살 30



운영위원회 회의 (분기 1회)



인권지킴이단 회의 (분기 1회)

제1,2차 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안건으로 2019년 예산안과 2018년 사업평가 보고, 2018년 결산안,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보고를 논의하였으며, 회의를 통한 요양원 운영에 있어 주요사항을 자문받고 결정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제 1차 인권지킴이단 회의가 실시되었습니다. 지역내 사회복지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법률가, 보호자 대표, 거주인 대표, 종사자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인권점검에 대한 노력, 거주인들과의 인권소통, 인권관련 논의사항, 안건 토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위생교육



뇌혈관질환 교육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감염병 및 식중독의 종류 및 증상과 올바른 손 씻기, 냉장고 관리방법 등의 내용으로 전 문강사로부터 위생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한 감염병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촉탁의 강의로 뇌혈관질환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의 예방과 치료방법에 대한 내용과 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운동과 식단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원동정



개인정보보호교육



인권교육

거주인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개인정보 수집이용 허용기준 등 기존에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거나 타성에 젖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전문강사의 강의로 인권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거주인들의 인권보장 및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외부지원 및 도움의 손길

- 01 2019년도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지원 기능보강사업 선정
- 02 SSCL "꿈의 엔진을 달다." 공모프로그램 선정
(재활프로그램 교구/300만원)
- 03 한국전력공사 햇살행복
발전설비 지원사업 1차 선정(태양광 발전설비/한국에너지재단)
- 04 2019년 공간복지 지원사업 상반기 '드림하우스' 공모사업 1차 선정
(옥상 방수/따뜻한 동행)

장애인계 소식

장애인등급제 폐지 안내

폐지 배경

무려 30여 년 동안 유지된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장애인복지법의 이전법인 심신 장애인복지법이 1987년 6월 5일에 제정되어 지체, 청각, 언어, 시각, 지적장애 5개 유형에 유형별로 1~6급의 등급체계를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등급에 기초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은 차등 복지혜택이 오히려 적절한 복지혜택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 장애 3급의 A씨가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대상이 1~2급으로 한정되어 실제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8년 3월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확정하며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초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통해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법안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기준 1~6등급으로 구분된 것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의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돼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하여 서비스 지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며,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합리적인 서비스 기준에 대해 현재 정부, 장애인단체, 관계부처 지자체는 협력하여 합리적 지원 기준 마련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2019년 7월부터 생활지원/이동지원 종합적 욕구조사를 통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되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득·고용지원 분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획일화와 낙인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

시기	서비스 분야	서비스 내용
2019년	일상생활지원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원,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2020년	이동지원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2022년	소득 · 고용지원	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실로암 칼럼

저희 실로암요양원 사회복지법인이 기독교지만 절 대로 종교활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개원 초기에는 불교신자 할머니가 계셨는데 절에 모시고 갈 정도로 철저하게 개인의 종교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시각장애인계에 돌아서 평생을 역술인(맹인·점쟁이)으로 살다가 이곳에 입소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얘길 잠깐 합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직업 중에서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점복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의 역사’(저자 임안수)라는 책에 보면, 조선 초기는 승유억불정책(崇儒抑佛政策)으로 매복맹인(賣卜盲人, 돈을 받고 점을 쳐 주는 맹인)이 천인의 신분으로 전락했던 불행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복업은 맹인의 직업으로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 그 원인으로는 점복업이 맹인의 전업이 되었고, 점복업의 학문인 음양학이 관학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위로는 국왕으로부터 아래로는 민초들에 이르기까지 점복속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 기층문화(basic culture, 基層文化, 서민 내지 상민(常民)에 의하여 형성된 기저적·계속적 문화)를 형성했으며, 점복의 사회적 기능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맹인은 경제적 자립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통합된 일원으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 중기에는 천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점복업이 안마와 더불어 역리학회라는 조직을 통하여 활성화되어 시각장애인 직업군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관학으로 제도화된 학문의 음양을 따져서 점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일명 미아리고개, 서울 성북구 돈암동 일대에 이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무교형식의 점복업이 아닌데도 무당, 점쟁이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점복업을 하는 사람들을 마치 신내림을 받은 무당 정도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독교인들도 또한 점복업에 종사하는 분들 역시 서로에 대한 호감이 반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요양원에 점복업에 종사하시던 어르신들이 4분이 오셨는데, 어르신 중의 한 분이 여기 오시기 직전까지 계속 영업을 하다가 오셨습니다. 당신의 고객

실로암요양원 김무경 상담지원 팀장



을 계속 관리하고 계셨다는 얘깁니다.

어느 날, 면담 요청을 하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동안 자신이 점복업에 종사하면서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늘 생각했던 것이 삼라만상(森羅萬象)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사화복(生死禍福)을 부처님께 뵙어주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으로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점(占)을 봐 달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골들을 다 정리하지 못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종교활동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내심 마음에 부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그 일을 관두지 마시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서 점을 봐주는 그런 관계로 어찌면 가족친지들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쉽게 인연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점 봐주셔도 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어르신이 깜짝 놀라면서 범인이 기독교라 이곳에 오면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던 중에 굿을 하러 가라고 하니 본인도 적지 않게 놀랐나 봅니다.

“정말로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마음에 큰 짐이 되었는데, 그 말씀 믿고 기쁜 마음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앞을 못 보는 어린 소녀가 9살에 스승을 만나 출가하여 70평생을 점쟁이로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과 헤어져 이곳에 여생을 보내고 싶어서 오신 분입니다. 또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 압박감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를 그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종교는 자유입니다. 본인들의 종교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한 절대로 종교가 다른 분들에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9년 동안 그래왔고, 앞으로 어떤 종교를 가진 분이 입소하더라도 그분들의 종교를 존중할 것입니다.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잘 돌봐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사는 삶(후원 및 자원봉사 안내)

1~3월 후원금 결산보고

(단위: 원)

세입	세출	
지정후원금	200,000	사무비
비지정후원금	6,411,550	재산조성비
기타	-	사업비
합계	6,611,550	합계
		10,004,627

1~3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단체	
HK시스템, 광적남원추어당, 난곡교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노원지회, 쭈아워홈, 알파문구, 양주연화푸드마켓, 코리아마트	
개인	
강승지, 강영순, 고선희, 권수진, 권영진, 권창오, 이해숙, 김경민, 김광희, 김말년, 김무경, 김미경, 김병숙, 김병호, 김성준, 김숙현, 김영선, 김영준, 김예리, 김은철, 김은희, 김인자, 김정현, 김태웅, 김태훈, 김현도, 김현숙, 김형도, 김혜옥, 김호직, 나병택, 남성우, 노성은, 노형지, 박고심, 박성일, 박인수, 박정훈, 박지훈, 박현우, 백기령, 서동균, 서범수, 신기철, 안해솔, 양민정, 양새롬, 양웅열, 염현희, 오승환, 오창래, 유준복, 유현서, 유홍진, 윤동혁, 윤지현, 윤찬호, 이강일, 이광열, 이금선, 이미경, 이범준, 이봉희, 이선민, 이순희, 이승옥, 이영태, 이윤규, 이윤희, 이재영, 이하나, 이현규, 이해숙, 임국화, 임준규, 장수진, 장은경, 장혜승, 전예리, 전정희, 전현출, 정구연, 정진아, 정혜미, 정혜정, 조경조, 조미경, 조영순, 지정규, 차대숙, 최도영, 최문옥, 최영아, 최영훈, 최은미, 하은주, 한재근, 한주희, 험은창, 험지훈, 험현식, 홍경란	

후원 안내

☎ 031-876-2900

후원하신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후원	치료, 교육 등의 재활서비스 지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 계좌번호: 793901-00-052667 (국민은행) 실로암요양원
결연후원	장애인과 1:1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전액은 결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 사용
물품후원	금전적 후원 외 생활용품, 의류, 가구, 운동기구 등
해피빈	http://happylog.naver.com/silvelnh

자원봉사 안내

☎ 031-876-2900

중·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직장인이 개인이나 단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력봉사활동	생활실 청소, 안내보행, 말벗서비스, 식당보조활동 등
외부활동	건강산책, 야외나들이, 현장체험 등
전문봉사활동	이미용봉사, 운전봉사, 사진봉사 등
치료봉사활동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웃음치료 등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



인생은 매일매일 사는 동안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저희 실로암요양원은 거주인들과 인생이라는 여행을 더욱 멋지게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항상 곁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